

〈전호에서 계속〉 모리카와 사장을 만난 것은 동경역 근처 '금강'이라는 중국음식점이었다. 오후 6시가 약속시간이었는데 모리카와 사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아주 반갑게 나를 맞이하며 오늘 직원들의 안내에 대하여 만족하느냐고

## 일본 양봉업계 大家 모리카와健康堂(株)를 찾아서(2)

6시10분 호텔을 나가자고 연락이 왔다. 밖은 생각보다는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니 신주쿠(新宿)역까지는 택시를 타고가자는 권과장의 제의에도 나는 가까운데 걸어가는 의견에 바꾸어 동경역의 새벽 아침을 즐길 수 있었다.

이미 신주쿠역에는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문장사, 빵장사, 달리고 있는 10여개의 전철들. 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제의 여독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철에 몸을 실었을 때 권과장은 오늘의 스케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오늘은 먼저 하네다(羽田)국제공항으로 가서 8시40분 일본항공편으로 쿠마모토(熊本)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도착하면 사토우(佐藤) 차장이 공항으로 마중나오는데 그는 현재 모리카와건강당의 큐슈지역의 방문판매회사인 "상하이"의 대표자이며, 모리카와건강당에서는 모리카와 사장을 대표하여 대외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보농산(주) 대표 김희성(본협 이사)

오늘의 주 업무는 모리카와건강당의 고우사(甲佐)공장 견학하고 시간이 나면 '水前寺'라는 관광지를 들릴 예정이란 설명이다. 약 30분 정도 사람들이 오르 내리더니 다음 역에서 전철을 바꿔 타고 모노레일로 하네다공항까지 이동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림과 같이 모노레일은 바다 위에 세워진 교각 위를 달리고 있었다. 역시 일본의 경제대국, 기술대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모노레일을 건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모노레일의 구조는 일

본의 단면을 그려놓은 듯 했다. 작은 의자, 구석구석 작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해서 많은 수화물 보관 코너를 마련한 걸 보면 일본인 생활이 실용주의의 대표자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

간단히 점심을 때운 후 쿠마모토발 일본항공에 몸을 실었다. 광음, 약간의 흔들림이 있자 비행기는 구름 속에 다달았다. 멀리 보이는 흰 눈에 쌓인 후지산, 그리고 검은 바다, 그 시선이 다시 비행기 속으로 돌아온 것은 상냥한 일본인 스튜어디스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연한 화장기에 말은 몰라도 물수건을 권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나를 고객으로 만들기에 만점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지나 이윽고 쿠마모토에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사토우 차장이란 사람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권과장의 소개로 명함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눈 그는 우리를 자기의 승용차로 안내하였다. 운전 중에 그는 내게 불었다. 쿠마모토에 온 첫 느낌에 대하여... 쿠마모토는 화산지역으로 땅 색깔이 새까맣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오늘의 스케

줄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지금 바로 고우사(甲佐)공장을 견학하고 점심식사 후 본사에서 상담을 마친 후 시간이 남으면 관광안내를 하겠다고 한다. 쿠마모토는 광주광역시 정도의 도시란 느낌이 든다. 인구는 약 100만 정도. 해변으로 약간의 공장 지대가 있고 농업이 주 생활의 수단이다. 한반도 특히 부산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공항에서 15분 정도 토요타 승용차로 달려가자 다리 건너로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일본에 온 주 목적은 이것을 보기 위함이고, 그들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이해서였다. 그런데 놀란 것이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것, 위험한 것, 경건한 그것, 그것은 다름 아닌 태극기가 현해탄 건너 모리카와 공장의 국기 게양대 위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권과장도 놀라는 표정이다. 언젠가 모리카와 사장이 한국에 와서 '태극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권과장과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반가웠고 또 흐뭇했다. 필자가 마치 국위선양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다. 외국에 와서, 더구나 이 일본에 와서 펼쳐지는 태극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고 작은 감동이었기 때문이다. <다음호 계속>



◇모리카와 고우사공장 방문 기념사진. 일장기와 나란히 태극기가 게양돼 있었다.(왼쪽부터 한국모리카와 권과장, 필자, 모리카와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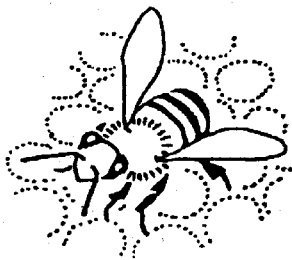


◇도쿄 신주쿠의 다카시마야백화점 건강식품코너. 필자가 모리카와건강당의 프로폴리스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영업안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다량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수입개방시대의 벽을 넘으시려면 저희 회사를 꼭 찾아주시기를 거듭 원하는 바입니다. 힘껏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럼(중량 약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봉(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신·구형)



###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02) 481-3697~8. (夜)441-2780, FAX (02) 442-9426

경남지역 연락처 및 집하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

「영농법인 지리산 벌꿀」 ☎(0596) 73-7366

### 벌꿀 농축시설 완비

### 벌꿀 · 화분 · 로얄제리 도산매 양봉기구 · 규격드럼 전문취급

양봉이 저의 인생 전부... 15년간 신용 하나를 신조로 삼아 (평택)대동양봉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봉우 여러분께서 힘겹게 생산한 벌꿀과 화분, 로얄제리 어느것 하나 소홀함 없이 연락주시는 대로 수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동양봉원 대표 손웅권

☎450-010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86-4(경찰서 앞)

☎(0333)655-5233, 665-0303(농축장)

FAX: 54-5233 휴대폰 011-422-5233(경기지회총무)